

# 공무원들 구내식당 몰리고 자전거 출퇴근족 부쩍 늘어

### 가혹한 고물가 고통에 외식 끊고 천정부지 과일은 포기 광주 사랑의식당 운영난...대학생들 알바 구하기 전쟁

# 광주시 광산구 평동에 사는 정은혜(여·35) 씨는 최근 고물가에 한푼이라도 줄여보려고 외식과 배달음식을 끊었지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식비를 줄이려고 직접 요리를 해도 식료품비가 너무 올라 한달 식비 10만원을 줄이는 것도 버겁기 때문이다.

정씨는 "외식은커녕 좋아하는 과일조차도 너무 비싸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당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잘한 소비를 줄여가며 버티고 있지만, 어떻게 돈을 아낄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이 커진다"고 말했다.

# 김유현(여·27, 남구 봉선동)씨는 올해 들어 차를 몰지 않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분식을 먹어도 김밥이 5000원 넘고 라면도 5000원에 달하는 등 식비가 너무 많이 들자, 교통비라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지인들 생일 선물까지 일일이 챙겨주곤 했는데, 당장 내 삶이 빠듯하니 지인들 경조사도 못 챙긴다"며 "요즘은 저녁 약속조차 안 잡으려고 노력한다"고 푸념했다.

고물가로 생활비는 물론 외식비까지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광주 지역 공무원과 직장인은 외식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구내식당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동구 구내식당 한달 평균 이용객은 한달 평균 2021년 3818명, 2022년 3886명, 2023년 4177명으로 증가했다. 서구 구내식당 또한 한달 평균 이용객이 2021년 4889명, 2022년 5233명, 2023년 5103명으로 늘고 있다.

자치구 청사 인근의 식당 가격이 줄줄이 오르다 보니 외식을 포기하고 가격이 싼 구내식당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올해 기준 광주시 동구와 서구의 구내식당 이용요금은 1식 4000원이다. 직장인들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취약계층들에게 고물가는 더 가혹하다. 광주 곳곳의 무료 급식소는 급등하는 식재료 비용에 경영

난을 호소하고 있다.

조영도 '분도와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식당' 총무이사는 "사·구에서 1인당 4000원 기준에 맞춰 보조금을 받아 사랑의식당을 운영 중인데, 식자재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 점점 더 운영이 힘들어진다"며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타 무료급식소와 함께 광주시에 식자재비 인상 건의를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일반 어르신에게 1식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광주서구종합노인복지관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류리 서구종합노인복지관 영양사는 "급식 메뉴를 최대한 조정해서 4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당장 힘들다고 급식 가격을 올렸다가 결식노인이 늘어날 수 있어 걱정이 많다"며 "최근 광주시에 유료 식사분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주길 요구했으나, 관련 지침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아 고민이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구하기 경쟁에 나섰다.

10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1851명 중 79.5%가 새학기를 맞아 알바에 나선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4년간 동일 조사(2021년 67.8%, 2022년 58.0%, 2023년 71.6%)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광주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현정(여·22)씨는 최근 서둘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밥 먹고 카페가고 교통비까지 하루 4-5만원씩 쓰다 보니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씨는 "주5일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식비로 하루 만원 이상 지출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도시락을 챙겨다니고 있다"며 "외식비에 비하면 싸지만 식재료비도 결코 싸지 않다보니 도시락도 간단히 싸게 된다. 이 터무니없는 물가에 맞춰 사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남녘은 벌써 꽃잔치...17일까지 광양 매화축제 10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에 봄꽃 매화가 피어있다. 광양매화축제는 오는 17일까지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양 울촌산단서 수산화리튬 또 유출...노동자 수백명 병원 진료

### 안전점검 불구 4일새 3차례 누출

노동당국이 1차 사고 때 재발방지책 수립을 통보했음에도 광양시 울촌산단단지 내 한 공장서 3차례 연속 화학물질 가스가 누출됐다.

10일 광양소방 등에 따르면 광양 울촌산단 내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차례 수산화리튬이 유출돼 수백명의 노동자가 병원을 치료받았다.

지난 6일 오전 8시께 파쇄포장공정 제품 이송 중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실리온 재질의 주름관이

찢어지면서 분말 형태의 수산화리튬이 누출됐다. 유출 물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7일과 9일 추가적으로 또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또다시 병원진료를 받아야 했다.

수산화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접촉 시 피부와 호흡기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계는 잇단 가스 누출과 관련, 보여주기식 현장점검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장 안전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원인과 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추가 위험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거작

업을 진행했지만, 누출이 계속 됐다는 점에서다.

노동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노동자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진행상황조차 알지 못한 채 수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1일 울촌산단 내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계는 여수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

##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 광주 8명·전남 33명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41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0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총 41명(광주 8명, 전남 33명)에 달했다.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한 달에 3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퇴근을 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산재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전년도 12명에 비해 4명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2022년 7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는 2022년 36명이던 산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33명으로 감소했으며 사망사고 건수 역시 33건에서 32건으로 1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로 숨진 사망자는 총 598명으로 건설업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 순이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으로 건설업 297건, 제조업 165건, 기타업종 122건이었다. 유형별로 추락사가 가장 많았으며 부딪힘(79건), 물체에 맞음(67건), 끼임(54건), 깔림·뒤집힘(43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국힘, 5·18왜곡 도태우 대구 공천 철회하라”

### 광주시·5·18기념재단 촉구 성명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을 한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한 데 대해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5·18북개입설”을 주장한 도 변호사의 공천을 확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즉각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도 변호사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국가를 썩먹는 5·18 신화화에 도전한다’며 ‘5·18북개입설’을 주장하고 5·18을 왜곡·폄훼했다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은 “국민의힘은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 가치 등을 중요하게 되므로 (공천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며 공천 재논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5·18왜곡 논란과 5·18정신계승에 반하는 공천 결과에 책임을 지고 공식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왜곡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초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이 우리 헌법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한다’, ‘5·18 정신의 헌법 수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북개입설’이 사실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도 변호사를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